

# 재활용 운동은 작은 실천부터



김연화/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원장

High thinking, Simple living -  
 이상은 높게, 생활은 간소하게-  
 라는 어느 외국시인의 글귀로부터 우리 소비 사회의 현실을 재조명하면서 자원 재활용 순환 체제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된다.

며칠전, 어머니 환경 교육 장소에서 유치원생을 둔 어머니의 솔직한 얘기는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쓰레기 배출시마다 딸아이의 분리수거에 대한 감시원 역할 때문에 아이 보는 앞에서 본인의 행동이 부끄러워 실천 의지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어린 시기의 환경교육이 이렇게 절실한 줄 새삼 느꼈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 재활용 순환 체제에 대한 자연의 섭리를 운운해 왔다. 소비 현실이 꼭 소유의 개념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쓰레기 문제에서만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경제제인 자원의 생산에 동참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체제의 필요성과 수거 요령 등을 우리는 익히 듣고 보아 왔으면서도, 나와는 동떨어진 즉 알지 못하고 있는 타인들의 교육 기회로만 생각해 왔다.

또한 우리는 처음에 여성들의 우유팩과 신문지를 모으는 재활용 운동을 통해 급부효과에만 기대감을 갖고 있던 현상들이, 최근에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솔선수범하는 변화된 모습과 참여인들의 적극성을 엿보면서 의식 변화와 실천 의지는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지리라 믿게 되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는 사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곧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치원 어린아이가 교육을 통해 얻는 의식이 행동으로 변화되는 체계는 많은 실천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며, 어른들의 부자연스럽지 않은 실천화된 모습들에서 확고한 행동 의지가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들의 습관들이기에 어른들의 사고 정립과 실천 의지는 매우 큰 영향을 주며, 그러한 의지 약화로 아이들의 올바른 실천습관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분리수거 체제의 미비점을 여타의 사항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다. 우선 나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얼마전 일본에서 리싸이클링 협회장을 만난 일이 기억난다. 왜 한

국은 쓰레기 문제를 그렇게 단 시간에 이루려고 하나? 재활용 순환 체계의 원동력을 작은 것에서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확신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각 지역마다 갖고 나온 헌 의류, 헌 가전제품 등을 공원의 알뜰 시장을 통해 끊임없이 재활용하여 이어나가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도 이러한 운동이 전시효과적, 캠페인적 성격이 아닌 자

신부터 변화하고 정착화하는 실행 단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는다.

결국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실천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반과 리사이클 체계 구축도 함께 정립될 것이다.

이제는 많은 것을 가지는 소비 중심에서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는 의식과 더불어 소비자가 아닌 절약가, 창조자가 될 수 있을 때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는 기대될 것이다.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실천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반과 리사이클 체계 구축도 함께 정립될 것이다

”

환경정책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

**안**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또는 감량화 촉진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 지침을 고시했다.

연차별 목표율은 아래 표와 같다.

특히 이번 지침은 감량화 내용에 사용

량 감량 이외에 회수·재활용 처리량도 포함하여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게 됐다. 한편 합성수지포장폐기물의 회수방법은 지자체의 분리수거, 제품의 판매망을 통한 회수, 재활용 단체를 통한 회수 등을 이용하고 재활용 방법으로는 재자원화 물질로 재생하는 것 이외에도 재생연료화·열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 목표율을 정한 지침을 확정·고시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표〉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 추진 연차별 목표율

98. 1. 1부터		2000. 1. 1부터		2002. 1. 1부터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1. 식품류 제품중 계란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받침(난좌) 또는 패	50% 이상	〈좌 동〉	60% 이상	포장규칙 별표에 규정된 제품에 사용되는 대상 포장재	60% 이상
2. 식품류 제품중 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과일받침(난좌)	5% 이상	〈좌 동〉	15% 이상		
3. 식품류 제품중 김라면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	〈좌 동〉	10% 이상		
4. 잡화류 제품중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원구·인형류의 제품과 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 접시류	30% 이상	〈좌 동〉	50% 이상		